이재명 "尹대통령, 거부권 남용하더니 사면권도 남용"

민주당 최고위…"통합비례정당, 불가피한 대응" 사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민주당의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로 '꼼수 위성정당' 비판이 제기되는 것에 "여당의 반칙, 탈법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히려 여당은 위성정당을 통해서 비례 의석을 100%를 독식하겠다고 하지 않느냐"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분명한 것은 여당의 위성정당 창당도 똑같다"며 "준연동형제도를 완전히 무효화시키겠다는 취지가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잣대는 언제나 동일해야 한다"며 "내 눈의 들보는 안 보고 남의 눈의 티끌을 찾아서 비난하는 태도는 정말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이번 비례 제도를 두고 불가피하게 민주당이 준(準) 위성정당, 본질은 위성정당이 맞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준연동형 취지를 조금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일부라도 비례 의석을 소수정당 또는 시민사회와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관진 전 안보실장 등등에 대해서 특별사면한다고 한다"며 "범죄가 확정된 지, 유죄가 확정된 지 1주일 만에 사면을 단행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법안) 거부권도 남용하더니 사면권도 남용하는 것 아니냐"라며 "이런 것을 바로 군주국가라고 한다. 대한민국은 왕정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여당이 사면복권 전제로 공천 신청을 받았단 말이 있던데 말이 되느냐"라며 "'약속 대련'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약속 사면'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듣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태우 사면해 놓고 바로 공천하지 않았느냐. 지금 '제2의 김태우 사건'을 만드는 것이냐"라며 "총선이 바로 이런 국정 난맥에 대해서, 권력 남용에 대해서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사면받은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은 지난해 10월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다시 출마했다가 패배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가운데)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과 신뢰 유지…총선 승리할 것"

한동훈 국힘 비대위원장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신세지거나 아는 사람을 은혜 갚는 식으로 끼워 넣거나, 내부 정치나 자기 세력 확대를 목적으로 한 구도를 짜는 것, 이런 식의 사(私)가 들어갔을 때 선거가 망하는 것"이라며 "그런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공천 원칙으로 "깨끗한 공천, 이기는 공천"을 제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몇 선 이상은 그만둬야 하고, 권력과 친하면 그만두는 것은 이기는 논리가 아니다"라며 주류 인사 등에 대한 인위적 물갈이는 없다는 방침도 거듭 밝혔다.

이어 "권력의 실세, 의회 권력 핵심이 이길 수 있고 우리 당 선거에 도움이 되는 분이라면, 그분들이 불출마하겠다고 하면 집에 가서 말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총선 목표에 대해선 의석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대신 "우리는 언더독(약자)이다. 열심히 따라 올라가고 있다. 우리는 승리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총선 목표로 151석을 제시한 것을 두고는 "왜 이렇게 소박한지 묻고 싶다"며 "이재명 대표의 총선 목표는 자기의 생존, 자기의 당권 유지가 아닌가 생각한다. 151이라는 숫자가 그 점을 엿보게 해준다"고 꼬집었다.

한 위원장은 수도권 총선 전략과 관련해 "우리 인재풀이 부족하다는 것도 현실이지만, 가용자원을 최대한으로 동원해서 의미 있는 지역에서 상징성을 들이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종석과 윤희숙, 누가 더 서울시민의 삶을 나아지게 할 것 같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은 모두 서울 중·성동갑 지역구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수도권 시민의 삶이 어떻게든 좋아지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재원까지 마련해 총선이 시작되기 전에 실천에 들어가자고 공약팀에 주문하고 있다"며 정책 준비 상황도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는 포기하는 것이 없다. 호남 포기도 포기할 것이고, 수도권 약세 지역에 대한 포기를 포기할 것"이라며 승리 의지를 거듭 밝혔다.

그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을 두고선 "기본적으로 저열한 몰카 공작"이라면서 "그렇지만 경호 문제나 전후 문제에서 국민들께서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 임명 등으로 보완해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앞서 갈등 양상이 표출됐던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대통령실과 소통은 다양한 방법으로 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저와 그분이 신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해주고 생각이 다를 때 자기 생각을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도 그렇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보수 불모지' 호남서 국민의힘 경선 치르나

광주 동남을,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사상 최초 후보 2명 출사표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 주목 '득표수' 총선 관전포인트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보수의 불모지'로 불리는 광주·전남에서 사상 초유의 국민의힘 후보 경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광주 8곳, 전남 10곳 선거구에 후보들을 모두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 많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광주 동남을 선거구에 2명,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선거구에 2명이 공천을 신청하면서 경선 여부에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단수공천 가능성도 높지만, 두 지역에서 경선이 이뤄진다면 광주와 전남에서 보수정당 최초의 후보 경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광주 동남을 선거구에 문충식 전 광주시 동남을 당협위원장과 박은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공천을 신청했다.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선거구에는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와 권성열 부경대 교수가 공천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광주·전남에서 한 선거구에 2명이 공천 신청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지난 5일부터 오는 8일까지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진행중이다. 공천 신청자가 2명인 선거구에서는 이번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가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불모지였던 광주·전남지역에서 후보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광주 8곳, 전남 10곳 선거구 중 일부 선거구는 아예 후보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였고, 일부 선거구는 대부분 단수 공천을 진행했었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 광주 동남을,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선거구 후보 경선이 이뤄진다면 이례적인 셈이다.

문충식 위원장은 전 동남을 당협위원장을 맡으며 지역에서 물밑 작업을 해왔다. 박은식 비대위원은 지난달 29일 광주시의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 추진을 막겠다며 정율성 공원 예정지인 광주 동남을에 출마를 선언했다.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는 보수 불모지에서 순천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내며 지역 민심을 탄탄히 다져왔다. 권성열 교수는 세계문화협회 사무총장을 지냈다. 경북에서 나고 자란 권 교수가 전남에서 이 전 대표와 대적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예비후보들은 모두 생각하지 않았던 경선을 치러야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아직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인 경선을 치를지 전략 공천을 할지 등을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후보들의 초조함은 극에 달하고 있다.

예비후보들은 당원들에게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가 실시된다. 02, 070, 062로 시작되는 전화는 꼭 받아주시고 꼭 (저를) 눌러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후보 적합도 조사가 끝나면 면접 점수 등을 합산해 경선 후보를 선정할 예정이다. 동남을,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구에 2명이 공천신청을 한 만큼 2인 경선을 치를 가능성도 있어 유권자들 역시 광주·전남지역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경선'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오는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광주 8곳, 전남 10곳 등 18곳 지역구에 모두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낼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준석 전 대표 때부터 펼쳐왔던 '서진(西進) 정책'의 파급력이 있을지도 관심사다.

앞서 2022년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는 광주 12.72%, 전남 11.44%의 득표율로 역대 보수 후보 중 최고치를 얻은 바 있다. 같은 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주기환 광주시장 후보는 15.90%, 이정현 전남지사 후보는 18.81%를 기록했다. '보수 불모지'였던 광주·전남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인식 변화의 바람이 일면서 이번 동남을,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민의힘 경선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국민의힘 내에서는 '광주·전남에서도 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때 불모지로 불렸던 광주·전남에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진전을 보일지도 총선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